

# 심 민 임실군수, 국가예산 발품행정

국회 방문해 주요 현안 예산반영 강력요청... 옥정호 수변도로·임실이도지구 병목개선 등

심 민 임실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행' 발품행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온종일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심 군수는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과 안호영 의원 그리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 조윤천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을 만나 군정 주요현안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최종 국회 단계에서의 마지막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어 국토 30호선 임실을 내 구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국비 5억원, 옥정호 접근성 개선과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을 위한 '운중교차로 개선사업'에 국비 22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현재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과 '운중교차로 개선사업'은 지역구 이용호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 각각 국비 4억원과 5억



심 민 임실군수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발품행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원이 의결됐다.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검토 중으로 3억원 정도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게 쏠리고 있다.

이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임실군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임실군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실군은 올해 34건 573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굵직한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08억원)과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0억원),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원),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91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성공적인 민선 7기의 시작을 알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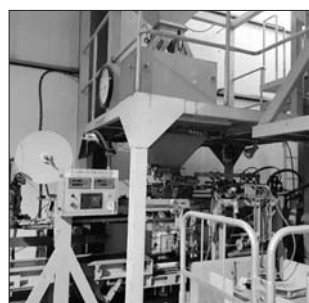
## 남원시, 친환경 쌀 전문법인체 공모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추진한 2019년 전북 쌀 Rice-up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남원지역은 우리나라 서남 중심권에 위치해 지리산과 섬진강, 요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친환경 명품 쌀부터 다양한 농산물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Rice-up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쌀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 쌀 품위 향상을 통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전국에 유통망을 확

대하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지난 10월 사업을 신청해 서면평가와 11월초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농농조조합법인이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2019년도에 국비 2억1천만원, 시비 6천3백만원, 자부담 1억4천7백만원 등 총 사업비 4억2천만원에 투자해 시설현대화와 신규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설비 보강과 증설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GAP인증 시설을 갖추는 기회가



되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호평

남원시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시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남원공설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는 남원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6개 기관 10개반 29명의 전담직원이 참여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남원시의 생활민원, 건축, 상수도, 기초생활보장, 보건과 관련된 주요민원을 비롯해 청소년 문제, 자영

업 및 학자금 대출, 실업급여, 일자리 상담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으며, 남원시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민선7기 들어 행정위주의 민원처리를 탈피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는 민원 상담반 운영과는 별도로 정책수렴을 위

해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를 펼쳤으며, 이 자리에서는 단편적인 청년정책과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청년복지, 청년문화 등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와 고민이 쏟아져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이 형식과 절차 없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현장중심의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표창

순창군, 진료비 감소로 4억6000만원 절감 효과

순창군은 최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2018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선진국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받게 된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업무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및 의료급여제도 사업 홍보,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기여도,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

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년대비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일수와 진료비 감소로 4억 6,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황숙주 군수는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적절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수렵장 개설 운영

남원시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335km를 설정해 운영한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 신청을 접수받아 총 497명에게 수렵을 승인했다.

남원시 환경과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 사무소를 운영할 계

획이다. 수렵이 제한되는 지역은 공원지역, 도시지역, 시군 경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민원지역 등으로 제한 지역 주변에 수렵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총기로 인한 민원 예방과 남원시 관광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액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물타리 설치 지원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류장기 환경과장은 시민들에게 수렵장 운영 기간내 입산 자제를 당부하고 불가피 입산할 시에는 식별이 뚜렷한 복장 착용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임실군 지사면 농민회

#### 수매현장서 나눔 봉사

한해 농사의 끝자락인 임실군 지사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농민의 마음을 어우르며 동거동락하는 '지사면 농민회'가 매년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지사면 농민회(회장 조완열)는 지난 16일 지사면 방계리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올해도 김치찌개, 막걸리, 생강차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한 해 동안 농사에 힘쓴 지역 농민들을 위로했다.

조완열 농민회장은 "올해는 폭염과 잦은 비로 미질이 좋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미질의 벼가 출하되어 다행이다"며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지사면 농민회는 탄탄한 조직력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와 지역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민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순창군이 지난 16일, 순창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266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강천산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민간에달단, 안전보안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가을철 산별예방을 위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 앱의 설치와 신고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했다. 안전신문고는 학교안전, 생활안전 등 분야를 가지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또한 연 2회에 걸쳐 안전신고 활동 우수자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정안 안전총괄계장은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커지는 발단이 되는 만큼 안전수칙을 지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